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Edible Economics · Chapter 9 BANANA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Ha-Joon Chang, Edible Economics — 「Banana」 (원서 PDF 72~79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7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챕터는 한 가지를 묻는다 — "다국적 기업은 바나나처럼 쓰기 나름인가."

이 장은 구운 식빵에 땅콩버터와 얇게 썬 바나나를 얹고 꿀을 뿌린 저자 집안의 엘비스 샌드위치로 시작한다. 바나나를 과일로만 아는 것은 바나나를 기르지 않는 나라의 이야기일 뿐, 바나나의 85%는 기르는 곳에서 소비된다고 추정되며 그곳에서는 흔히 요리해 먹는다고 저자는 말한다. 동남아시아에서 작물화된 바나나는 아메리카로 건너가 노예의 식량이 되었고, 19세기 말부터는 미국 바나나 회사들이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북부의 경제와 정치를 쥐고 흔들어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낳았다. 저자는 이를 다국적 기업 이야기로 넓혀, 다국적 기업이 새 산업과 기술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 이익은 어디까지나 '잠재적'이며 정책이 없으면 조립만 하는 '고립 지역'이 남는다고 말한다. 다국적 기업은 바나나처럼 생산적이지만, 한국 · 타이완처럼 규제로 기술 이전을 끌어낼 때에야 받아들인 나라에 이롭다는 것이 이 장의 결론이다. 이 노트는 해석을 외우게 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네 눈으로 먼저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6장과 연결)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PDF 쪽 아래에 인쇄된 번호보다 1 큽니다).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과 장 끝의 각주는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 · '○쪽 각주'로 표시합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챕터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다국적 기업도 바나나처럼 쓰기 나름 – 정책이 있어야 이롭다(78쪽 ¶2~¶3) / 이익은 '잠재적'일 뿐(76쪽 ¶3) / 고립 지역의 스크루드라이버 작업(76쪽 ¶4~¶5) / 생산지에서는 바나나를 요리해 먹는다(72쪽 ¶5)
4~5	**밑줄 함축 의미**	simply a fan of it / I am with the King here / an essential cog … the engine of the export economy / El Pulpo, 'the octopus' / a tiny bit / So the gig economy wasn't invented in Silicon Valley / at best ignorant and at worst offensive / just that – 'potential' benefits / 'unknown quantities' / screwdriver operations / literally the most hi-tech economy / if not a 'banana republic'
6	지칭 추론	they · their가 포르투갈인(the Portuguese)을 가리키는 73쪽 ¶3(출제는 노예를 섞는다) / It(73쪽 ¶1 = the banana) / its(74쪽 ¶1 = UFC) / their(74쪽 ¶3 = the banana companies) / its · it(75쪽 첫 줄 = the US government · the Colombian military) / they(77쪽 ¶3 = Korea and Taiwan)
7~8	내용 일치·불일치	85% · 95% · 25%(72쪽 ¶5) / 1470년대 · 1521 · 1479 · 20만 파운드(73쪽 ¶2~¶3) / 1928 · 12월 6일 · 47~2,000 · 3,000(74쪽 ¶4~75쪽 첫 줄) / 1897 · 1904 · 1950(75쪽 ¶1) / 60% · 20% · 35% · 3,500달러(77쪽 ¶1)
9~10	**어법**	be supposed to have p.p. · so much so that · 동명사 주어 · It is estimated that · it ~ that 강조 · be estimated to have been p.p. · cannot ~ without · 과거분사 후치(spread) · by the time + 과거완료 · whom · as little ~ as possible · may have p.p. ~ but · come to V · most of which · be such that · let · make + O + 동사원형 · could not have p.p. · be left with · 삽입절(which most people assume) · Only when 도치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predominant↔minor · perishable↔durable · meagre↔ample · tight(grip) · beyond(jurisdiction) · a tiny bit↔a great deal(74쪽 ¶3) · disputed↔undisputed · superior↔inferior · isolated↔integrated · extensively↔sparingly · liberal↔strict
12	빈칸 추론	Despite being so 'hi-tech'(77쪽 ¶1) / just that – 'potential' benefits(76쪽 ¶3) / used in the wrong way(78쪽 ¶2~¶3)
13	문장 삽입	기술이 전해지는 두 길(76쪽 ¶1): 직접 – 현지인이 일하다 지식을 가지고 옮김 → 간접(But it can also happen indirectly) – 현지 기업에서 투입물을 삼
14	무관한 문장	한국 · 타이완의 다국적 기업 규제(77쪽 ¶3)에 같은 장의 다른 대목(캐번디시 품종, 78~79쪽 각주 iv) 끼워 넣기
15	순서 배열	톱니바퀴 → 수출 경제의 엔진(74쪽 첫 줄) → 철도 · 증기선 · 냉장(74쪽 ¶1) → 미국 회사의 플랜테이션 → 경제 장악 · 엘 풀포(74쪽 ¶2)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6	요약문 완성	다국적 기업 규제(77쪽 ¶2): 지분 제한 · 기술 이전 · 현지 고용 · 현지 조달 요건 → 이익을 최대로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숫자 · 연도 · 이름 · 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많다 – 85% · 95% · 25% · 1,000 · 20만 파운드 · 10배 · 100배 · 47~2,000 · 3,000 · 50% · 60% · 20% · 35% · 3,500달러 · 3만 달러 · 6만 달러 · 90%. 연도도 많다 – 1470년대 · 1479 · 1521 · 1830년대 중반 · 1871 · 1897 · 1904 · 1928 · 1930년대 · 1950 · 1950년대 · 1960년대 중반 · 1980년대 · 1998.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생산지 소비 85% ↔ 국제 거래 디저트 바나나 95%, 아프리카 도착 1470년대 ↔ 동남아시아 1521, Chiquita = UFC ↔ Dole = SFC, 말을 만든 오 헨리 1904 ↔ 퍼뜨린 네루다 1950, 실제 사망자 47~2,000(논란) ↔ 소설 3,000 넘게, 한국 · 타이완 = 규제 ↔ 문 활짝 열기). '~라고들 한다 · 추정 · 어떤 이들에 따르면 · 대부분이 그렇게 여긴다'(allegedly · is supposed to · It is estimated · by some accounts · most people assume)를 사실로 바꾼 선지도 조심한다.

1-2. 구조도 – 「Banana」 (72~78쪽)

논증형(사람 이름을 딴 요리 → 엘비스 샌드위치 → 바나나를 먹는 두 방식 · 85% → 작물화 · 유전적으로 똑같은 바나나 → 아프리카 · 포르투갈인 · 노예의 식량 → 수출 경제의 엔진 · 미국 바나나 회사 → 엘 풀포 · 쿠데타 · 해병대 → 바나나 학살 → 바나나 공화국 → 다국적 기업의 이익 → '잠재적' 이익 · 고립 지역 · 필리핀 → 규제 · 한국과 타이완 → 결론). 핵심 축은 **다국적 기업의 잠재적 이익 vs 실제로 남는 고립 지역**, 그리고 **문 활짝 열기 vs 정책으로 이끌기**.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72 ¶1 + 78 각주 i · ii	도입	사람 이름을 딴 요리 – 만들었다는 사람(동파육 · 시저 샐러드 · 나초) / 받았다는 사람(비프 웰링턴 · 피자 마르게리타 · 피치 멜바)
72 ¶2~¶3 + 78 각주 iii	엘비스 샌드위치	그저 팬이던 엘비스의 이름 · 바나나와 땅콩버터 · 저자 아내의 아침
72 ¶4	먹는 방식(1)	샌드위치 속은 드문 방식 · 빵 · 디저트 · 주로 과일로
72 ¶5(~73)	먹는 방식(2)	85%는 생산지에서 소비(추정) · 흔히 요리 · 플랜틴과 디저트 바나나(국제 거래의 95%) · 맥주 · 열량의 25%까지
78~79 각주 iv	캐번디시	국제 거래의 95% · 1,000가지 넘는 품종 · 1830년대 중반 팩스턴이 개발
73 ¶1 + 79 각주 v	작물화	동남아시아 원산 · 씨 없는 돌연변이 · 사람 손으로만 번식 · 유전적으로 똑같음 / 파나마병
73 ¶2	아프리카로	인도양을 건넘 · 1470년대 포르투갈인 · 반투어 banana · 1521 마젤란
73 ¶3	노예의 식량	마데이라 · 카나리아 제도 · 노예선의 주식 · 텃밭 · 에이커당 20만 파운드
74 첫 줄~¶1	수출 경제의 엔진	철도 · 증기선 · 냉장 → 미국 바나나 회사(UFC · SFC)의 대규모 플랜테이션
74 ¶2	엘 풀포	온두라스의 철도 · 전등 · 통신 / 1930년대 과테말라의 UFC / '문어'
74 ¶3	정치 지배	자체 세관 · 경찰 · 정치인 매수 · 쿠데타 · 필리버스터 · 미국 해병대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74 ¶4~75 + 79 각주 vi	바나나 학살	1928 파업 · 12월 6일 · 시에나가(47~2,000명) · 『백년의 고독』
75 ¶1~¶2	바나나 공화국	1904 오 헨리 「제독」 · 1950 네루다 / 오늘의 옷 브랜드
75 ¶3~76 ¶1	새 산업 · 기술	받아들인 나라에 해를 끼칠 수도 / 새 산업(1998 인텔 · 1960년대 중반 한국) · 기술 · 경영 전수
76 ¶2~¶3	'잠재적' 이익	세계은행 · WTO 등의 권고 · 아일랜드 · 싱가포르 / 실현에는 정부 정책이 필요
76 ¶4~77 ¶1	고립 지역	국제 인력 · 수입 투입물 → 스크루드라이버 작업 / 필리핀(첨단 60% · 1인당 3,500달러)
77 ¶2~¶3	규제	지분 제한 · 기술 이전 · 현지 고용 · 현지 조달 요건 / 한국 · 타이완 · 중국
78 ¶1	통념의 반례	자유방임이 아니라 공공 정책 개입 · 땅의 90% 가까이를 가진 싱가포르 정부
78 ¶2~¶3	결론	가장 생산적인 과일도 잘못 쓰면 해롭다 / 다국적 기업도 정책이 있을 때에야 이롭다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요리 이름의 유래	만들었다는 · 받았다는 사람의 이름(allegedly) – 동파육 · 비프 웰링턴 등	그저 팬이던 사람 – 엘비스 샌드위치
바나나를 먹는 방식	생산하지 않는 나라 – 주로 과일(그대로 · 시리얼 · 요거트 토핑)	생산 지역(85% 소비 추정) – 흔히 요리(탄수화물 · 채소) · 맥주
바나나의 종류	요리용 바나나(플랜틴)	디저트 바나나 – 국제 거래의 95% / 둘은 같은 종의 다른 재배 품종
작물화의 득실	먹을 부분이 많은 씨 없는 돌연변이	자연 번식 능력 상실 · 유전적으로 똑같음 → 병에 약함(각주 v)
바나나와 유럽인	아프리카 서해안 1470년대 – 이미 적어도 수백 년 토착화	원산지 동남아시아 – 1521년에야(마젤란)
아메리카의 바나나	처음 – 노예 플랜테이션 경제의 톱니바퀴	몇 세기 뒤 – 수출 경제의 엔진
미국 바나나 회사	경제 – 철도 · 전등 · 우편 · 통신 장악(엘 풀포)	정치 – 정치인 매수 · 쿠데타 지원 · 해병대 침공
1928년 바나나 학살	역사 – 시에나가, 사망자 추정 47~2,000명(논란)	소설 – 『백년의 고독』의 마콘도, 3,000명 넘게
'banana republic'	원래 뜻 – 부자 나라 대기업이 가난한 나라를 거의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어두운 현실	오늘 – 옷 브랜드(저자: 잘해야 무지, 나쁘면 모욕)
다국적 기업의 이익	잠재적 이익 – 새 산업 · 기술과 경영의 전수(직접 · 간접)	실제 – 고립 지역의 스크루드라이버 작업 · 낮은 일자리
다국적 기업 정책	문 활짝 열기 – 낮은 세금 · 가벼운 규제(세계은행 · WTO 등이 권고)	규제로 이끌기 – 지분 제한 · 기술 이전 · 현지 고용 · 현지 조달(일본 · 한국 · 타이완 · 핀란드)
아일랜드 · 싱가포르	통념 – 다국적 기업에 너그러워서 성공	저자 – 공공 정책 개입(맞춤 지원 · 싱가포르 정부의 토지) 덕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78쪽 각주 i	동파육 = 11세기 중국 시인 쑤둥포 · 시저 샐러드 = 20세기 초 이탈리아계 미국인 요리사 체사레 카르디니 · 나초 = 20세기 중반 멕시코 요리사 이그나시오 '나초' 아나야
78쪽 각주 ii	비프 웰링턴 =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을 이긴 영국 장군, 초대 웰링턴 공작 아서 웰즐리 · 피자 마르게리타 = 통일 이탈리아의 첫 왕비 마르게리타(**1871년**부터) · 피치 멜바 = 19세기 후반 오스트레일리아 소프라노 넬리 멜바
Elvis sandwich	바나나 · 땅콩버터(흔히 베이컨, 때로 꿀 · 젤리) · 엘비스 프레슬리('왕')가 늘 먹었다고 한다(is supposed to) · 각주 iii: 젤리 = 과육을 걸러 내고 만든 잼
바나나 소비	**85%**가 생산지(남아시아 · 동남아시아 · 아프리카 · 남아메리카 · 카리브)에서 소비된다고 추정 · 흔히 요리(탄수화물 · 특히 남인도에서 채소)
디저트 바나나 · 아프리카	디저트 바나나 = 국제 거래 바나나의 **95%** · 요리용 플랜틴과 같은 종의 다른 재배 품종 /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맥주 · 우간다 · 르완다 · 카메룬 농촌에서는 바나나가 하루 열량의 최대 **25%**
Cavendish(각주 iv)	국제 거래의 **95%** · 전 세계 생산의 약 절반 · 품종은 1,000가지 넘음 · **1830년대 중반** 개발 · 6대 데번셔 공작 윌리엄 캐번디시의 이름 · 개발 = 수석 정원사 조지프 팩스턴 · Musa cavendishii · 더비셔 채츠워스 하우스의 온실
작물화	동남아시아 원산 · 수천 년 전 작물화(추정) · 씨 없는 돌연변이 · 자연 번식 능력 상실 · 땅속줄기(corm)에서 난 곁순(sucker)을 옮겨 심음 · 유전적으로 똑같음
Panama disease(각주 v)	곰팡이가 일으키는 시듦병 · 캐번디시가 사라질 걱정 · **1950년대** 그로 미셸이 앞선 변종(TR One)으로 사라진 뒤 캐번디시가 대체 · 지금은 TR Four
아프리카로	기원전 2천년기~기원후 1천년기 사이 인도양을 건넘 · 포르투갈인 서해안 도착 **1470년대** · 이미 적어도 수백 년(어쩌면 수천 년) 토착화 · banana = 서중부 아프리카 반투어에서
Magellan	유럽인이 원산지 동남아시아에서 바나나를 처음 본 것은 **1521년** · 포르투갈 선장 페르디난드 마젤란(페르낭 드 마갈량이스)의 태평양 항해
노예와 바나나	마데이라섬 · 카나리아 제도(**1479년**까지 일부 포르투갈 소유)의 설탕 노예를 먹임 · 노예선에서 쌀과 함께 주식(특히 플랜틴) · 플랜테이션의 작은 텃밭
생산성	에이커당 **20만 파운드** = 얌 수확량의 **10배** · 감자의 **100배** · 최소한의 노동
19세기 말	철도 · 증기선 · 냉장 기술 → 상하기 쉬운 농산물의 장거리 대량 수출(11장 · 2장 · 8장 참조) · 그전엔 미국에서도 소량만 팔린 사치 과일
미국 회사	United Fruit Company(UFC, 지금의 Chiquita) · 작은 경쟁사 Standard Fruit Company(SFC, 지금의 Dole) / 카리브 · 중앙아메리카 · 남아메리카 북부(콜롬비아 · 에콰도르 = 요즘 최대 수출국)
경제 지배	온두라스 – UFC · SFC가 철도 · 전등 · 우편 · 전신 · 전화 장악 / **1930년대** 과테말라 – UFC = 최대 지주 · 최대 고용주 · 최대 수출업자 · 거의 모든 철도의 주인 · El Pulpo('문어')
정치 지배	자체 세관 · 경찰 · 정치인 매수 · 쿠데타 지원 · filibuster(미국 용병, 네덜란드어 '해적'에서) · **20세기 전반** 미국 해병대의 주기적 침공 · 점령
Banana Massacre	콜롬비아 · **1928년** 가을 UFC 파업(화장실 · 의료 시설 · 현금 임금 · 직원 대우) · 미국 정부의 군사 개입 위협 · **12월 6일** 콜롬비아군 · 시에나가 · 사망자 추정 **47~2,000명**(논란) · 각주 vi: 긱 경제는 실리콘밸리 발명품이 아님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García Márquez	콜롬비아 소설가 · 노벨상 수상자 · 『백년의 고독』(저자가 가장 좋아하는 책) · 소설 속 **3,000명** 넘게 · 가상 마을 마콘도
banana republic	오 헨리(본명 윌리엄 시드니 포터) **1904년** 단편 「제독(The Admiral)」 · 안추리아 = 가상의 온두라스(**1897년** 망명해 산 곳) / **1950년** 칠레 시인 파블로 네루다(노벨상) 시 「United Fruit Co.」
새 산업	**1998년** 인텔 코스타리카 마이크로칩 조립 공장 / **1960년대 중반** 페어차일드 · 모토롤라의 한국 조립 공장(당시 트랜지스터라디오 조립이 최첨단)
다국적 기업 우대론	기업인 · 경제학자 · 세계은행 · WTO 등 — 두 팔 벌려 환영 · 낮은 세금 · 면세 · 가벼운 규제 / 아일랜드 · 싱가포르(FDI = 해외 직접 투자)가 예로 꼽힘
필리핀	어떤 이들에 따르면 가장 첨단 경제 · 제조업 수출 중 첨단 제품 **60%**(미국 약 **20%** · 한국 **35%**, 세계은행 자료) · 1인당 소득 약 **3,500달러**(한국 **3만 달러** 넘게 · 미국 약 **6만 달러**)
규제	지분 제한(핵심 부문 **50%** 미만) · 합작 투자 · 기술 이전 · 로열티 상한 · 현지 고용 · 훈련 · 현지 조달 요건 / 일본 · 한국 · 타이완 · 핀란드(2차 대전 뒤~**1980년대**)
한국 · 타이완	처음엔 저기술 부문(의류 · 봉제 인형 · 운동화)에 세금 감면 · 노동법 일부 중지 → 온갖 규제로 첨단 산업에 유도 / 삼성 · TSMC(반도체) · LG(디스플레이) · 현대-기아(자동차, 6장 참조) · 중국은 비공식 협상
78쪽 ¶1	아일랜드 · 싱가포르 = 공공 정책 개입 덕(입지도 도움 — 아일랜드의 EU 회원국 지위 · 싱가포르의 무역 요충지) · 첨단 산업(전자 · 제약) 맞춤 지원 · 싱가포르 정부 = 땅의 거의 **90%**를 가진 최대 지주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Edible Economics · 「Banana」 (원서 PDF 72~78쪽) · 7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9-1 엘비스 샌드위치와 '과일' 바나나 72쪽 ¶1~¶4 + 78쪽 각주 i~iii

원문 위치 원서 72쪽 ¶1~¶4 + 78쪽 각주 i~iii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72쪽 ¶1 첫 문장	dishes named after the person who (allegedly) invented them	allegedly — 전언 · 과거분사 후치
★	78쪽 각주 i	the eleventh-century Chinese poet Su Dongpo … Cesare Cardini … Ignacio 'Nacho' Anaya	인물 — 일치 후보
▲	72쪽 ¶1 둘째 문장	Or after the person whom they were (allegedly) invented for and dedicated to	whom + 뒤에 남은 전치사
★	78쪽 각주 ii	Arthur Wellesley … Queen Margherita … (from 1871) … Nellie Melba	숫자 1871 · 인물
◆	72쪽 ¶2 첫 문장	one dish that is named after someone who was simply a fan of it	밑줄 의미: 만든 이도 받은 이도 아닌 팬
★	72쪽 ¶2 둘째 문장	often, but not necessarily, with bacon; sometimes with honey or jelly	내용 일치 — 빈도 표현
★	78쪽 각주 iii	Jelly here is jam made after filtering out the fruit pulp	용어 — 젤리의 뜻
▲	72쪽 ¶2 셋째 문장	Presley is supposed to have eaten it all the time, so much so that people came to call it after him	be supposed to have p.p. · so much so that
◆	72쪽 ¶3 첫 문장	I am with the King here.	밑줄 의미: 엘비스와 같은 편
★	72쪽 ¶3 둘째 문장	one of my wife's favourite breakfast items, and I often join her in the repast	저자 집안의 아침
▲	72쪽 ¶4 첫 문장	Having it as a sandwich filling, I admit, is rather an unusual way of consuming banana	동명사 주어 → 단수 is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72쪽 ¶4 둘째 문장	banana bread or banana muffins ... the American banana split or the British banoffee pie	예시 — 빵 · 디저트
◆	72쪽 ¶4 셋째 문장	the predominant form ... is to eat it as a fruit ... (well, it is a fruit, isn't it?)	주된 방식 · 저자의 농담

내용

사람 이름을 딴 요리는 많다. 그 요리를 만들었다고들 하는(allegedly) 사람의 이름을 딴 동파육 · 시저 샐러드 · 나초가 있고, 그 요리를 만들어 바친 대상이라고들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딴 비프 웰링턴 · 피자 마르게리타 · 피치 멜바가 있다. 각주에 따르면 앞의 셋은 각각 11세기 중국 시인 쑤둥포, 20세기 초 이탈리아계 미국인 요리사 체사레 카르디니, 20세기 중반 멕시코 요리사 이그나시오 '나초' 아나야의 이름을 땄고, 뒤의 셋은 각각 워털루에서 나폴레옹을 이긴 영국 장군인 초대 웰링턴 공작 아서 웰즐리, 통일 이탈리아의 첫 왕비(1871년부터) 마르게리타, 19세기 후반 오스트레일리아 소프라노 넬리 멜바의 이름을 땄다. 그런데 그저 그 음식의 팬이던 사람의 이름을 딴 요리가 하나 있으니, 엘비스 샌드위치다. 엘비스 샌드위치(또는 그냥 엘비스)는 바나나와 땅콩버터를 넣은 샌드위치로(흔히, 꼭 그렇지는 않지만 베이컨을 넣고 때로 꿀이나 젤리를 넣는다), 전설적인 미국 로큰롤 가수이자 많은 사람에게 그냥 '왕(the King)'인 엘비스 프레슬리가 좋아했다. 각주에 따르면 여기서 젤리는 젤라틴 디저트가 아니라, 처음 끓인 뒤 과육을 걸러 내고 만든 잼이다. 프레슬리는 이 샌드위치를 늘 먹었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대단해서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따서 부르게 되었다. 저자는 이 점에서 '왕'과 같은 편이다. 꿀을 살짝 뿌린 땅콩버터 바나나 샌드위치는 저자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침 메뉴 가운데 하나이고, 저자도 자주 함께 먹는다. 달고 부드러운 바나나 맛과 고소하고 살짝 짠 땅콩버터 맛의 조합은 그야말로 거부할 수 없다고 저자는 말한다. 물론 저자도 인정하듯 바나나를 샌드위치 속으로 먹는 것은 꽤 드문 방식이다. 사람들은 바나나로 바나나 빵 · 바나나 머핀 같은 '단 제과'나 미국의 바나나 스플릿 · 영국의 바노피 파이 같은 디저트를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바나나를 먹는 주된 방식은 사과나 딸기처럼 과일로 먹는 것이다(저자는 '하긴 바나나는 과일이니까'라고 덧붙인다). 그대로 먹거나, 아침 시리얼 · 요거트 · 아이스크림에 과일 토핑으로 얹어 먹는다.

어법

- **There are a lot of dishes named after the person who (allegedly) invented them** : named after = 과거분사 후치(~의 이름을 딴). who = 주격 관계대명사. allegedly = ~라고들 한다(전언 — 사실 단정이 아님).
- **Or after the person whom they were (allegedly) invented for and dedicated to** : 앞 문장의 There are a lot of dishes named가 생략되고 after만 이어진다. whom = 뒤에 남은 전치사 for · to의 목적어(목적격 관계대명사). invented for와 dedicated to가 and로 병렬.
- **But there is one dish that is named after someone who was simply a fan of it** : that · who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one dish · someone). simply = 그저. a fan of = ~을 좋아하는 사람.
- **loved by Elvis Presley, the legendary American rock 'n' roll singer, or simply 'the King' to many people** : loved by = 과거분사구(앞의 sandwich를 설명). 콤마 사이 = Elvis Presley의 동격. or = 곧(다른 이름).
- **Presley is supposed to have eaten it all the time, so much so that people came to call it after him.** : be supposed to have p.p. = ~했다고들 한다(전언 · 완료부정사로 과거의 일). so much so that = 그 정도가 대단해서 ~할 정도다. come to V = ~하게 되다. call A after B = B의 이름을 따서 A를 부르다.
- **The combination of the sweet, creamy taste of banana with the nutty, slightly salty taste of peanut butter is simply irresistible.** : 주어의 핵심 = The combination(단수) → is. the combination of A with B = A와 B의 조합.
- **Having it as a sandwich filling, I admit, is rather an unusual way of consuming banana.** : 동명사구 주어(Having ~) → 단수 동사 is. I admit = 삽입절. rather = 꽤.

- **But the predominant form of banana consumption is to eat it as a fruit, like apple or strawberry** : be + to 부정사 = 보어(~하는 것이다, 명사적 용법). like = 전치사(~처럼).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llegedly	~라고들 하는	reportedly	—
dedicate	바치다	devote	—
legendary	전설적인	fabled	obscure
drizzle	(조금) 뿌리다	sprinkle	—
repast	식사	meal	—
nutty	고소한(견과 맛의)	nut-flavoured	—
irresistible	거부할 수 없는	tempting	unappealing
filling (n.)	(샌드위치 등의) 속	stuffing	—
consume	먹다, 소비하다	eat	produce
predominant	주된	main	minor
neat (a.)	(섞지 않고) 그대로인	plain	mixed
topping	위에 얹는 것	garnish	—

내용 일치 만든 사람(allegedly) = 동파육 · 시저 샐러드 · 나초 / 받은 사람(allegedly) = 비프 웰링턴 · 피자 마르게리타 · 피치 멜바 · 각주 i: 쑤둥포(11세기 중국 시인) · 카르디니(20세기 초 이탈리아계 미국인 요리사) · 아나야(20세기 중반 멕시코 요리사) · 각주 ii: 웰즐리(워털루) · 마르게리타 왕비(1871년부터) · 멜바(오스트레일리아 소프라노) · 엘비스 샌드위치 = 그저 팬의 이름 · 바나나 · 땅콩버터(흔히 베이컨, 때로 꿀 · 젤리) · 각주 iii: 젤리 = 과육을 걸러 낸 잼 · 늘 먹었다고 한다(is supposed to) · 저자 아내의 아침 · 샌드위치 속은 드문 방식 · 주된 방식 = 과일로. **밑줄 의미** simply a fan of it = 만든 사람도 받은 사람도 아니라 그저 좋아한 사람 / I am with the King here = 저자도 엘비스처럼 이 샌드위치를 좋아한다 / well, it is a fruit, isn't it? = 과일로 먹는 게 당연하다는 농담 / 72쪽 ¶1 them(invented them) = dishes · 72쪽 ¶2 it(a fan of it) = one dish(엘비스 샌드위치) · him(call it after him) = Presley · 72쪽 ¶3 her(join her) = 저자의 아내 · 72쪽 ¶4 it(Having it) = banana.

> **한 줄 요약** 사람 이름을 딴 요리 가운데 엘비스 샌드위치는 그저 팬의 이름을 땄고, 바나나를 생산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바나나를 주로 과일로 먹는다.

9-2 생산지의 바나나는 요리한다 – 작물화와 유전적 동일성 72쪽 ¶5 ~ 73쪽 ¶1 + 78~79쪽 각주 iv · v

원문 위치 원서 72쪽 ¶5 ~ 73쪽 ¶1 + 78~79쪽 각주 iv · v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72쪽 ¶5 첫 문장	That, however, is the case only for people who live in countries that don't produce bananas.	전환점 — 제목 문항의 바탕
★	72쪽 ¶5 둘째 문장	It is estimated that 85% of bananas are consumed in places where they are produced	숫자 85% · 추정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72쪽 ¶5 셋째 문장	more often than not, they are cooked – as a carbohydrate component ... or as a vegetable	내용 일치 — 요리 방식
▲	72~73쪽 ¶5 넷째 문장	it is not just the so-called 'cooking banana', also known as plantain, that is cooked	it ~ that 강조 · not just
★	72쪽 ¶5 다섯째 문장(73쪽)	95% of internationally traded bananas are dessert bananas	숫자 95% — 85%와 혼동 주의
★	78~79쪽 각주 iv	the Cavendish ... over 1,000 varieties ... developed in the mid-1830s ... Joseph Paxton	인물 · 숫자 — 캐번디시가 만들지 않음
▲	72쪽 ¶5 여섯째 문장(73쪽)	different cultivars of the same species ... often don't distinguish the two types	까닭 — 둘 다 요리하는 이유
★	72쪽 ¶5 일곱째~여덟째 문장(73쪽)	brewed into beer ... Uganda, Rwanda and Cameroon ... up to 25% of daily calorie intake	숫자 25% · 나라 이름
★	73쪽 ¶1 첫~둘째 문장	originally from South-east Asia ... estimated to have been domesticated several thousand years ago	원산지 · 추정
▲	73쪽 ¶1 셋째 문장	in which seedless mutants were selected for having more edible parts	전치사 + 관계대명사 · 수동
◆	73쪽 ¶1 셋째 문장	the banana lost its ability to reproduce by natural means	작물화의 대가
▲	73쪽 ¶1 넷째 문장	cannot be propagated without human intervention	이중 부정 cannot ~ without
★	73쪽 ¶1 다섯째 문장	Bananas spread in such a way are, as a result, all genetically identical.	과거분사 후치 · 수 일치 — 어법 문항
★	79쪽 각주 v	Panama disease ... Gros Michel ... in the 1950s ... TR One ... TR Four	되풀이된 실수 — 1950년대

내용

그러나 이는 바나나를 생산하지 않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다. 바나나의 85%는 바나나를 생산하는 곳, 곧 남아시아 · 동남아시아 · 아프리카 · 남아메리카 · 카리브에서 소비된다고 추정된다. 이 지역에서도 물론 바나나를 과일로 먹지만, 그보다는 요리해 먹는 경우가 더 많다. 끼니의 탄수화물로(삶고 찌고 튀기고 굽고, 무엇이든) 먹거나, (특히 남인도에서) 짭짤한 요리의 채소로 쓴다. 요리하는 것은 플랜틴이라고도 하는 이른바 '요리용 바나나'만이 아니다. '디저트 바나나'라고 부르는 더 단 품종도 요리한다. 바나나 생산 지역 밖 사람들이 바나나로 아는 것이 바로 이 디저트 바나나인데, 국제 거래되는 바나나의 95%가 디저트 바나나이기 때문이다. 각주에 따르면 국제 거래 바나나의 거의 전부(95%)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절반이 캐번디시라는 한 품종이다. 세계에 1,000가지가 넘는 바나나 품종이 있는데도

그렇다. 1830년대 중반에 개발된 이 품종은 6대 데번셔 공작 윌리엄 캐번디시의 이름을 땄지만, 개발한 사람은 그의 수석 정원사이자 친구인 조지프 팩스턴이다. 이 품종이 캐번디시 가문 공작령의 본거지인 더비셔 채츠워스 하우스의 온실에서 개발되었기에, 팩스턴은 고용주이자 친구를 기려 Musa cavendishii(Musa는 여러 바나나 종을 포함하는 속)라고 이름 붙였다(저자는 데번셔 공작의 본거지가 왜 데번셔가 아니라 더비셔에 있는지는 묻지 말라고 농담한다). 두 종류를 다 요리해 먹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두 종류는 같은 종의 다른 재배 품종이고, 바나나를 생산하는 많은 나라 사람들은 흔히 둘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에서는 바나나로 맥주도 빚는다. 우간다 · 르완다 · 카메룬 같은 나라의 농촌에서는 바나나가 하루 섭취 열량의 25%까지 차지할 수 있다. 바나나는 본디 동남아시아에서 왔고, 수천 년 전에 작물화되었다고 추정된다. 먹을 부분이 더 많은 씨 없는 돌연변이를 골라 기른 작물화 과정에서 바나나는 자연적으로 번식하는 능력을 잃었다. 작물화된 바나나는 사람이 손을 써야만 퍼뜨릴 수 있다. 다 자란 바나나의 땅속줄기(corm)에서 자라는 곁순(sucker)을 잘라 내 다시 심어야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이렇게 퍼진 바나나는 모두 유전적으로 똑같다. 각주에 따르면 이 때문에 바나나는 다른 작물보다, 특히 수익성이 왕인 상업 환경에서 금세 유전적으로 단일해질 수 있고, 그렇게 좁아진 유전자 풀은 병을 막기 어렵게 만든다. 지금 국제 거래 바나나의 95%를 차지하는 캐번디시가 곰팡이가 일으키는 시듦병인 이른바 파나마병으로 사라질지 모른다는 걱정이 있다. 저자는 바나나 산업이 이윤을 좇아 유전적 다양성을 줄이는 역사적 실수를 되풀이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캐번디시 자체가 대체 품종이다. 그때까지 압도적인 상업 품종이던 그로 미셸이 파나마병의 앞선 변종(지금의 TR Four와 구별되는 TR One, 곧 Tropical Race One)으로 사라진 1950년대에 상업 무대에 나왔다.

어법

- **That, however, is the case only for people who live in countries that don't produce bananas.** : That = 앞 단락 내용(바나나를 주로 과일로 먹는다는 것). be the case = 사실이다, 해당하다. who · that = 주격 관계대명사.
- **It is estimated that 85% of bananas are consumed in places where they are produced** : It is estimated that ~ = ~라고 추정된다(가주어 it · 진주어 that절). where = 관계부사(선행사 places). 추정이므로 단정하지 말 것.
- **And it is not just the so-called 'cooking banana', also known as plantain, that is cooked.** : it is ~ that 강조 구문(강조 대상 = not just the 'cooking banana'). also known as = 다른 이름으로는. 뒤 문장 It is also the case with ~로 이어진다.
- **which is what people outside the banana-producing regions know as banana** : which = 계속적 용법(앞의 'dessert banana'를 받음). what = 선행사를 품은 관계대명사. know A as B = A를 B로 알다.
- **It is estimated to have been domesticated several thousand years ago.** : be estimated to have been p.p. = ~되었다고 추정된다(완료 수동 부정사 — 과거의 일). It = the banana.
- **In the process of domestication, in which seedless mutants were selected for having more edible parts, the banana lost its ability to reproduce** : in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선행사 the process). be selected for + 동명사 = ~ 때문에 골라지다. ability to V = ~하는 능력.
- **Domesticated bananas cannot be propagated without human intervention** : cannot ~ without … = …없이는 ~할 수 없다(이중 부정 → 반드시 사람 손이 필요). 조동사 + 수동(be propagated).
- **Bananas spread in such a way are, as a result, all genetically identical.** : spread = 과거분사(그렇게 퍼진 — Bananas를 꾸밈). 문장의 동사는 are(주어 Bananas 복수). as a result = 삽입.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avoury	짭짤한	salty	sweet
variety	품종	strain	—
cultivar	재배 품종	cultivated variety	—
distinguish	구별하다	differentiate	confuse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brew	(술을) 빚다	ferment	—
intake	섭취(량)	consumption	—
domesticate	작물화하다, 길들이다	cultivate	—
mutant	돌연변이	variant	—
edible	먹을 수 있는	eatable	inedible
reproduce	번식하다	breed	—
propagate	번식시키다	multiply	—
intervention	개입	involvement	—
genetically identical	유전적으로 똑같은	clonal	genetically diverse
homogenous	균질한, 단일한	uniform	diverse

내용 일치 과일로 먹는 것은 비생산국 이야기 · 85% 생산지 소비(추정) — 남 · 동남아시아 · 아프리카 · 남아메리카 · 카리브 · 흔히 요리(탄수화물 · 채소, 특히 남인도) · 플랜틴 = 요리용 · 디저트 바나나 = 국제 거래의 95% · 같은 종의 다른 재배 품종 · 아프리카 맥주 · 우간다 · 르완다 · 카메룬 열량 25%까지 · 각주 iv: 캐번디시(1,000가지 넘는 품종 · 1830년대 중반 · 개발 = 팩스턴) · 동남아시아 원산 · 수천 년 전 작물화(추정) · 씨 없는 돌연변이 · 자연 번식 능력 상실 · 곁순 옮겨 심기 · 유전적으로 똑같음 · 각주 v: 파나마병 · 1950년대 그로 미셸 → 캐번디시. **밑줄 의미** That … is the case only for … = 과일로 먹는다는 말은 바나나를 생산하지 않는 나라에만 맞다 / more often than not = 대개는 / lost its ability to reproduce by natural means = 작물화의 대가 — 사람 손 없이는 퍼지지 못함 / profitability is the king(각주 v) = 수익성이 가장 중요한 / 72쪽 ¶5 they(are cooked) = bananas · 73쪽 ¶1 It(is estimated to have been domesticated) = the banana · its(ability) = the banana.

> **한 줄 요약** 바나나의 85%는 생산지에서 소비된다고 추정되며 흔히 요리해 먹고, 작물화된 바나나는 사람 손으로만 퍼져 모두 유전적으로 똑같다.

9-3 아프리카를 거쳐 노예의 식량으로 73쪽 ¶2 ~ 74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73쪽 ¶2 ~ 74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73쪽 ¶2 첫 문장	reached Africa sometime between the second millennium bce and the first millennium ce	시기 — 범위가 넓음
◆	73쪽 ¶2 첫 문장	(I know, it is a big timespan, but that is how it is with these things)	저자의 덧붙임 — 단정 불가
▲	73쪽 ¶2 둘째 문장	by the time the first Europeans … arrived …, bananas had been naturalized … possibly for millennia	by the time + 과거완료 · possibly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73쪽 ¶2 둘째 문장	the Portuguese, arrived in sub-Saharan Africa, on the west coast in the 1470s	숫자 1470년대
★	73쪽 ¶2 셋째 문장	adopted the word 'banana' from Bantu languages of West-Central Africa	낱말의 기원
◆	73쪽 ¶2 넷째 문장	Ironically, the Europeans first encountered bananas in their ancestral home ... only in 1521	Ironically — 원산지에서 더 늦게
★	73쪽 ¶2 넷째 문장	Ferdinand Magellan (or Fernão de Magalhães in Portuguese)	인물 — 서답형
★	73쪽 ¶3 첫 문장	feed the enslaved Africans whom they were forcing to produce sugar on the island of Madeira and the Canary Islands	지칭 문항 1순위 — they
★	73쪽 ¶3 첫 문장	(which were part owned by Portugal until 1479)	숫자 1479
★	73쪽 ¶3 둘째 문장	(especially plantains), together with rice, as a staple on slave ships	내용 일치 — 쌀과 함께
▲	73쪽 ¶3 셋째 문장	the slaves were encouraged to plant bananas on the small plots given to them ... to supplement their meagre rations	be encouraged to V · 과거분사 후치
★	73쪽 ¶3 넷째 문장	200,000 pounds per acre – ten times the yield of yams and one hundred times that of potatoes	숫자 — 배수 · that of
▲	73쪽 ¶3 다섯째 문장	on which the slave-owners wanted the slaves to spend as little time as possible	as little ~ as possible · want O to V
◆	74쪽 첫 줄	may have entered the Americas as an essential cog ... but ... it became the engine of the export economy	밑줄 의미: 톱니바퀴 → 엔진

내용

바나나는 인도양을 건너 기원전 2천년기와 기원후 1천년기 사이 어느 때 아프리카에 이르렀다(저자는 '알다시피 아주 긴 기간이지만 이런 일은 원래 그렇다'고 덧붙인다). 그래서 최초의 유럽인, 곧 포르투갈인이 1470년대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서해안에 닿았을 때 바나나는 이미 적어도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 동안 그 대륙에 뿌리내려 있었다. 포르투갈인은 '바나나'라는 낱말을 서중부 아프리카의 반투어에서 받아들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럽인이 바나나의 원래 고향인 동남아시아에서 바나나를 처음 만난 것은 1521년, 포르투갈 선장 페르디난드 마젤란(포르투갈어로 페르낭 드 마갈량이스)의 유명한 태평양 항해 때가 되어서였다. 포르투갈인은 마데이라섬과 카나리아 제도(1479년까지 일부를 포르투갈이 소유)에서 억지로 설탕을 생산하게 한 노예 아프리카인을 먹이는 데 바나나를 썼다. 아프리카인을 노예로 아메리카에 실어 나르기 시작하자 포르투갈인은 바나나(특히 플랜틴)를 쌀과 함께 노예선의 주식으로 썼다.

플랜테이션에서는 노예들에게 빈약한 배급 식량을 보충할 먹을거리를 기르라고 준 작은 땅뙈기에 바나나를 심도록 권했다. 기후만 맞으면 바나나 나무는 일 년 내내 자라고 생산성이 아주 높아, 사람의 노동을 최소한으로 들이고도 에이커당 20만 파운드를 낸다. 얌 수확량의 10배, 감자의 100배다. 그래서 바나나는 노예가 맡은 땅에 딱 맞는 작물이었다. 노예 주인들은 노예가 그 땅에 되도록 시간을 적게 쓰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바나나가 아메리카에 들어온 것은 노예 기반 플랜테이션 경제라는 기계의 없어서는 안 될 톱니바퀴로서였을지 모르지만, 몇 세기 뒤 바나나는 그 지역 많은 나라의 수출 경제를 이끄는 엔진이 되었다.

어법

- **The banana crossed the Indian Ocean and reached Africa sometime between the second millennium bce and the first millennium ce** : crossed와 reached가 병렬. sometime = 어느 때(부사). between A and B = 기간의 범위.
- **by the time the first Europeans … arrived in sub-Saharan Africa …, bananas had been naturalized on the continent at least for several hundred years and possibly for millennia** : by the time + 과거 = ~할 무렵에는 → 주절은 과거완료(had been naturalized — 그 전부터 계속). possibly = 어쩌면(추측).
- **Ironically, the Europeans first encountered bananas in their ancestral home in South-east Asia only in 1521** : only in + 연도 = ~에야 비로소. Ironically =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사(아프리카보다 원산지에서 더 늦게 만났다는 아이러니).
- **The Portuguese used bananas to feed the enslaved Africans whom they were forcing to produce sugar** : to feed = 목적의 to부정사. whom = 목적격 관계대명사(force + O + to V의 O). they = the Portuguese.
- **the slaves were encouraged to plant bananas on the small plots given to them for the purpose of growing food to supplement their meagre rations** : encourage O to V의 수동 = be encouraged to V. given to them = 과거분사 후치. for the purpose of + 동명사 = ~할 목적으로.
- **producing 200,000 pounds per acre – ten times the yield of yams and one hundred times that of potatoes** : producing = 부대 상황 분사구문. 배수 + the + 명사 = ~의 몇 배. that of = the yield of(반복 피하기).
- **So it was an ideal crop for slave-controlled plots, on which the slave-owners wanted the slaves to spend as little time as possible.** : on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spend time on the plots). want + O + to V. as little ~ as possible = 되도록 적게.
- **The banana may have entered the Americas as an essential cog in the machinery …, but a few centuries later it became the engine of the export economy** : may have p.p. ~ but = 양보(~였을지는 몰라도). as = 자격(~로서). cog와 engine의 대비.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millennium	천년기	thousand years	—
timespan	기간	period	—
naturalize	(동식물을) 토착화하다	acclimatize	—
ancestral	조상의, 원래의	original	—
encounter	만나다	come across	avoid
enslaved	노예가 된	in bondage	free
staple (n.)	주식	basic food	luxury
plot (n.)	작은 땅	patch	—
supplement (v.)	보충하다	add to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meagre	빈약한	scanty	ample
yield (n.)	수확량	harvest	—
input (n.)	투입	contribution	output
cog	톱니바퀴(의 이)	gear	—
engine	엔진, 원동력	driving force	—

내용 일치 기원전 2천년기~기원후 1천년기 사이 인도양 건너 아프리카 · 포르투갈인 1470년대 서해안 · 이미 적어도 수백 년(어쩌면 수천 년) · banana = 서중부 아프리카 반투어 · 원산지 동남아시아에서는 1521년에야(마젤란의 태평양 항해) · 마데이라 · 카나리아 제도(1479년까지 일부 포르투갈 소유) · 노예선에서 쌀과 함께 주식(특히 플랜틴) · 노예의 작은 텃밭 · 에이커당 20만 파운드(얌의 10배 · 감자의 100배) · 최소한의 노동 · 톱니바퀴 → 수출 경제의 엔진. **밑줄 의미** a big timespan = 시기를 정확히 말할 수 없음을 인정 / Ironically = 원산지보다 아프리카에서 먼저 만난 아이러니 / an essential cog in the machinery = 노예 플랜테이션 경제를 굴러가게 한 부품 / the engine of the export economy = 수출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 / 73쪽 ¶3 they(were forcing) = the Portuguese · them(given to them) = the slaves · it(was an ideal crop) = the banana.

> **한 줄 요약** 아프리카를 거쳐 아메리카에 온 바나나는 노예를 적은 비용으로 먹이는 작물이었다가, 몇 세기 뒤 수출 경제의 엔진이 되었다.

9-4 '문어' 바나나 회사 — 경제와 정치를 쥐다 74쪽 ¶1~¶3

원문 위치 원서 74쪽 ¶1~¶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74쪽 ¶1 첫 문장	the developments of railways, steamships and refrigeration techniques … (also see 'Rye', 'Okra' and 'Beef')	순서 문항 · 11장 · 2장 · 8장 연결
★	74쪽 ¶1 둘째 문장	Banana was one of the major beneficiaries of this development.	순서 문항의 고리
▲	74쪽 ¶1 셋째 문장	until the late nineteenth century bananas had been a luxury fruit sold in small quantities even in the US	과거완료 · even
★	74쪽 ¶1 넷째 문장	the United Fruit Company (Chiquita today) and its smaller rival the Standard Fruit Company (Dole today)	서답형 — 회사 이름 짝
★	74쪽 ¶1 넷째 문장	Colombia and Ecuador, which are the biggest banana exporters in the world these days	내용 일치 — 요즘 최대 수출국
★	74쪽 ¶2 둘째 문장	in Honduras, … controlled the railways, electric lights, mail, telegraph and telephone	예시 — 온두라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74쪽 ¶2 셋째 문장	In the 1930s, in Guatemala, UFC 'was the largest landowner, the largest employer, the largest exporter ...'	숫자 1930년대 · 인용
◆	74쪽 ¶2 넷째 문장	called the US banana companies El Pulpo, 'the octopus', for having a tight grip	밑줄 의미 1순위
▲	74쪽 ¶3 첫 문장	Such near-absolute economic control naturally gave the banana companies an extremely high degree of hold over politics	give + 간접목적어 + 직접목적어
★	74쪽 ¶3 둘째 문장	their own customs and police, so much of their business w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어휘 문항 — beyond
▲	74쪽 ¶3 셋째 문장	Politicians were bought off, to guarantee 'pro-business' policies.	수동 · 목적의 to부정사
◆	74쪽 ¶3 넷째 문장	raising extremely low taxes to very low levels, making them sell unused land, strengthening worker rights a tiny bit	밑줄 의미 · 어휘 문항: 아주 작은 개혁도
★	74쪽 ¶3 넷째 문장	US mercenaries, called filibusters (derived from the Dutch word for pirates)	낱말 유래
★	74쪽 ¶3 다섯째 문장	the US Marines regularly invaded and occupied some of these countries	서답형 단어의 바탕

내용

19세기 말 철도 · 증기선 · 냉장 기술이 발달하면서 상하기 쉬운 농산물을 먼 곳까지 대량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11장 · 2장 · 8장 참조). 바나나는 이 발전의 큰 수혜자 가운데 하나였다. 바나나는 쉽게 상하기 때문에 19세기 말까지는 아메리카의 바나나 생산국과 꽤 가까운 미국에서조차 적은 양만 팔리는 사치 과일이었다. 미국으로 바나나를 대량 수입할 수 있게 되자 미국 회사들, 특히 United Fruit Company(지금의 Chiquita)와 그보다 작은 경쟁사 Standard Fruit Company(지금의 Dole)가 카리브(쿠바 · 도미니카 공화국 · 아이티), 중앙아메리카(특히 온두라스 · 코스타리카 · 니카라과 · 파나마 · 과테말라), 남아메리카 북부(요즘 세계 최대의 바나나 수출국인 콜롬비아와 에콰도르)에 대규모 바나나 플랜테이션을 세웠다. 미국 바나나 회사들은 곧 이 나라들의 경제를 지배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온두라스에서는 UFC와 SFC가 철도 · 전등 · 우편 · 전신 · 전화를 장악했다. 1930년대 과테말라에서 UFC는 '최대 지주이자 최대 고용주, 최대 수출업자였고, 그 나라 철도의 거의 전부를 가진 주인'이었다. 바나나에 기대는 나라의 많은 사람은 경제의 거의 모든 면을 꽉 움켜쥐고 있다는 뜻에서 미국 바나나 회사들을 엘 풀포(El Pulpo), 곧 '문어'라고 불렀다. 이처럼 거의 절대적인 경제 장악은 당연히 바나나 회사들에 아메리카 바나나 생산국의 정치를 쥐고 흔드는 아주 큰 힘을 주었다. 바나나 회사들은 자체 세관과 경찰을 두어 사업의 많은 부분이 국가의 관할권 밖에 있었다. '친기업' 정책을 보장받으려고 정치인을 매수했다. 회사의 이익에 어긋나는 일을 하려던 정부(예를 들어 극히 낮은 세금을 아주 낮은 수준으로 올리거나, 회사에 쓰지 않는 땅을 팔게 하거나, 노동자의 권리를 아주 조금 강화하려던 정부)에 맞선 쿠데타를 바나나 회사들이 지원했고, 때로는 필리버스터(filibuster, 해적을 뜻하는 네덜란드어에서 온 말)라고 불린 미국 용병이 힘을 보탰다.

20세기 전반 내내 미국 해병대는 미국 회사, 특히 바나나 회사의 이익을 지키려고 이 나라들 가운데 몇 곳을 주기적으로 침공해 점령했다.

어법

- the developments of railways, steamships and refrigeration techniques started to enable large-scale exports of perishable agricultural products over long distances : 주어 the developments(복수) → started. enable + O(목적어) = ~을 가능하게 하다.
- Due to their perishability, until the late nineteenth century bananas had been a luxury fruit sold in small quantities even in the US, which is quite close to ... : due to + 명사 = ~ 때문에. had been = 과거완료(19세기 말까지 계속). sold = 과거분사 후치. which = 계속적 용법(선행사 the US).
- Once the large-scale import of bananas into the US became a possibility, US companies ... established large-scale banana plantations : once = 접속사(일단 ~하자). become a possibility = 가능해지다.
- The US banana companies soon came to dominate the economy of these countries. : come to V = ~하게 되다(변화). dominate = 타동사(전치사 없이 목적어).
- called the US banana companies El Pulpo, 'the octopus', for having a tight grip over almost all aspects of their economies : call + O + C(5형식). for + 동명사 = ~ 때문에(이유). 'the octopus' = El Pulpo의 풀이.
- Such near-absolute economic control naturally gave the banana companies an extremely high degree of hold over politics : give + 간접목적어(the banana companies) + 직접목적어(an extremely high degree of hold). such + 형용사 + 명사.
- Coups d'état against governments that tried to do things against their interests ... were supported by the banana companies, sometimes reinforced by US mercenaries : 주어 Coups d'état(복수) → were supported(수동).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governments). their = 바나나 회사들의. reinforced = 과거분사구(덧붙는 설명).
- the US Marines regularly invaded and occupied some of these countries,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American companies : invaded와 occupied가 병렬(같은 목적어). in order to V = ~하기 위해.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erishable	상하기 쉬운	spoilable	durable
beneficiary	수혜자	recipient	—
rival	경쟁자	competitor	ally
dominate	지배하다	control	—
landowner	지주	landlord	tenant
grip (n.)	움켜쥠, 장악	hold	—
near-absolute	거의 절대적인	almost total	partial
customs	세관	border control	—
jurisdiction	관할권	authority	—
buy off	매수하다	bribe	—
coup d'état	쿠데타	putsch	—
mercenary	용병	hired soldier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nvade	침공하다	attack	—
occupy	점령하다	seize	liberate

내용 일치 19세기 말 철도 · 증기선 · 냉장 → 장거리 대량 수출(11장 · 2장 · 8장 참조) · 그전엔 미국에서도 사치 과일 · UFC(지금 Chiquita) · 작은 경쟁사 SFC(지금 Dole) · 카리브 · 중앙아메리카 · 남아메리카 북부 · 콜롬비아 · 에콰도르 = 요즘 최대 수출국 · 온두라스: 철도 · 전등 · 우편 · 전신 · 전화 · 1930년대 과테말라 UFC = 최대 지주 · 고용주 · 수출업자 · 거의 모든 철도 · El Pulpo('문어') · 자체 세관 · 경찰 · 정치인 매수 · 쿠데타 지원 · filibuster(네덜란드어 '해적') · 20세기 전반 미국 해병대 침공 · 점령. **밑줄 의미** El Pulpo, 'the octopus' = 경제의 거의 모든 면을 다리로 휘감은 회사 /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 나라의 법과 권한이 미치지 못함 / raising extremely low taxes to very low levels = 아주 작은 변화조차 회사는 용납하지 않았다는 꼬집음 / a tiny bit = 아주 조금 / 74쪽 ¶1 its(smaller rival) = UFC · 74쪽 ¶2 their(economies) = 바나나에 기대는 나라들 · 74쪽 ¶3 their(interests) = the banana companies.

> **한 줄 요약** 19세기 말 대량 수출이 가능해지자 미국 바나나 회사들은 아메리카 생산국의 경제를 '문어'처럼 쥐고 정치까지 좌우했다.

9-5 바나나 학살과 '바나나 공화국' 74쪽 ¶4 ~ 75쪽 ¶2 + 79쪽 각주 vi

원문 위치 원서 74쪽 ¶4 ~ 75쪽 ¶2 + 79쪽 각주 vi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74쪽 ¶4 첫 문장	gained further notoriety with the so-called Banana Massacre in Colombia	어휘 — notoriety
★	74쪽 ¶4 둘째 문장	In the autumn of 1928, the workers in UFC plantations went on strike	숫자 1928 — 서답형
▲	74쪽 ¶4 둘째 문장	demanding things most of which would be considered essential these days	수량어 + of which
★	74쪽 ¶4 둘째 문장	toilets and medical facilities; payment of wages in cash, instead of coupons … as employees, rather than as subcontractors	내용 일치 — 요구 사항
◆	79쪽 각주 vi	So the gig economy wasn't invented in Silicon Valley.	밑줄 의미: 하청 노동의 오랜 역사
▲	74쪽 ¶4 셋째 문장(75쪽)	(all too credible, given its record in the region)	given = ~을 고려하면 · its = US government
★	74쪽 ¶4 셋째 문장(75쪽)	the Colombian military decided to end it by forcible means on 6 December	날짜 — 12월 6일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74쪽 ¶4 넷째 문장(75쪽)	a large – and disputed – number … in the banana town of Ciénaga (the estimate ranges from 47 to 2,000)	숫자 — 논란 · 추정
★	74쪽 ¶4 다섯째~여섯째 문장(75쪽)	One Hundred Years of Solitude … over 3,000 striking workers are killed … Macondo	소설 ↔ 사실 구분
▲	75쪽 ¶1 첫 문장	The dominance … was such that these countries came to be called 'banana republics'.	be such that
★	75쪽 ¶1 둘째 문장	coined by … O. Henry (real name William Sydney Porter) in his 1904 short story 'The Admiral'	인물 · 연도 — 서답형
★	75쪽 ¶1 둘째 문장	Anchuria, a fictionalized version of Honduras, where he had lived in exile in 1897	숫자 1897 · 과거완료
★	75쪽 ¶1 넷째 문장	in 1950, Pablo Neruda, the Chilean poet … 'United Fruit Co.'	내용 불일치 — 만든 이 ↔ 퍼뜨린 이
◆	75쪽 ¶2 셋째 문장	The clothing brand name is at best ignorant and at worst offensive.	밑줄 의미 1순위
◆	75쪽 ¶2 넷째 문장	calling a hipster coffee grinding shop Satanic Mills … Dark Continent	비유 — 어두운 말을 가볍게 쓰기

내용

미국 바나나 회사들은 콜롬비아의 이른바 바나나 학살로 더 큰 악명을 얻었다. 1928년 가을 UFC 플랜테이션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대부분 요즘이라면 꼭 필요하다고 여길 것들이었다. 화장실과 의료 시설을 갖출 것, 부풀린 값으로 물건을 파는 UFC 상점에서만 쓸 수 있는 쿠폰이 아니라 현금으로 임금을 줄 것, 노동자를 허술한 노동법이 주는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하청업자가 아니라 직원으로 대우할 것. 각주에서 저자는 '그러니 긱 경제는 실리콘밸리에서 발명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인다. 파업을 곧 깨뜨리지 않으면 군사 개입하겠다고 위협한 미국 정부(이 지역에서 미국이 해 온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믿을 만한 위협이었다)의 압력 아래, 콜롬비아군은 12월 6일 무력으로 파업을 끝내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군은 바나나 마을 시에나가에서 파업 노동자를 많이 쏘아 죽였는데, 그 수는 논란이 있다(추정치가 47명에서 2,000명까지 걸쳐 있다). 바나나 학살은 콜롬비아의 소설가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걸작『백년의 고독』(저자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라고 고백한다)으로 우리의 집단 기억에 영원히 새겨졌다. 이 책에서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이 사건을 소설로 그리는데, 3,000명이 넘는 파업 노동자가 살해되어 열차 칸에 실린 채 소설의 배경인 가상의 마을 마콘도의 바나나 플랜테이션에서 실려 나가고 학살의 모든 증거가 지워진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북부에서 미국 바나나 회사들의 지배가 어찌나 대단했던지 이 나라들은 '바나나 공화국'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 말을 만든 사람은 미국의 단편 작가 오 헨리(본명 윌리엄 시드니 포터)로, 1904년 단편「제독(The Admiral)」에서였다. 이 단편의 배경인 안추리아는 온두라스를 소설로 꾸민 곳으로, 오 헨리가 1897년 망명해 살았던 곳이다. 정부의 한심한 모습을 재정 · 조직 양면에서 보여 주는 이 이야기에서 오 헨리는 안추리아를 '바나나 공화국'이라고 부른다. 약 반세기 뒤인 1950년, 칠레 시인이자 또 한 명의 노벨상 수상자 파블로 네루다는 '바나나 공화국'을 이야기하는 시「United Fruit Co.」를 써서 이 말을 더 널리 퍼뜨렸다.

요즘 미국과 다른 부자 나라의 많은 사람은 'banana republic'을 옷 브랜드로만 안다. 그러나 이 말은 원래 부자 나라의 대기업이 가난한 개발도상국을 거의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어두운 현실을 그리려고 만든 말이다. 저자는 이 옷 브랜드 이름이 잘해야 무지한 것이고 나쁘게 보면 모욕적이라고 말한다. 힙스터 커피 원두 가게를 '사탄의 공장(Satanic Mills)'이라고 부르거나 고급 선글라스 가게를 '암흑 대륙(Dark Continent)'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어법

- demanding things most of which would be considered essential these days : most of which = 수량어 + of + 관계대명사(선행사 things). would be considered = 오늘이라면 그렇게 여겨질(가정의 would).
- treatment of the workers as employees, rather than as subcontractors who could not even get the minimal protection that the weak labour laws offered : A rather than B = B가 아니라 A(as employees ↔ as subcontractors 병렬). who = 주격, that = 목적격 관계대명사.
- Under pressure from the US government, which threatened military intervention if the strike was not broken soon : which = 계속적 용법(선행사 the US government). if절 수동 was not broken = 시제 일치(과거).
- (all too credible, given its record in the region) : all too + 형용사 = 너무나 ~한(유감스럽게도). given + 명사 = ~을 고려하면(전치사처럼 쓰임). its = the US government's.
- The Banana Massacre has been permanently etched in our collective memory by Gabriel García Márquez : 현재완료 수동(has been etched) = 지금까지 새겨져 있음. by = 행위자.
- The dominance of the US banana companies … was such that these countries came to be called 'banana republics'. : be such that = 정도가 대단해서 ~하다(such가 보어). come to be called = 불리게 되다(수동 부정사).
- Anchuria, a fictionalized version of Honduras, where he had lived in exile in 1897 : 콤마 사이 = 동격. where = 계속적 관계부사(선행사 Honduras). had lived = 과거완료(1904년 단편보다 앞선 일).
- But it was originally invented to describe the dark reality of the near-absolute domination of poor developing nations by large corporations from rich countries. : to describe = 목적의 to부정사. domination of A by B = B가 A를 지배함(of = 대상, by = 행위자).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notoriety	악명	infamy	renown
massacre	학살	slaughter	—
strike (n.)	파업	walkout	—
inflated	부풀린	exaggerated	reduced
subcontractor	하청업자	contractor	employee
credible	믿을 만한	believable	implausible
forcible	무력에 의한	violent	peaceful
disputed	논란이 있는	contested	undisputed
etch	새기다	engrave	erase
fictionalized	소설로 꾸민	dramatized	factual
coin (v.)	(말을) 만들다	invent	—
exile	망명	banishment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itiful	한심한	pathetic	admirable
offensive	모욕적인	insulting	respectful

내용 일치 콜롬비아 바나나 학살 · 1928년 가을 UFC 파업 · 화장실 · 의료 시설 · 현금 임금(쿠폰 대신) · 하청업자 아닌 직원 대우 · 각주 vi: 긱 경제는 실리콘밸리 발명이 아님 · 미국 정부의 군사 개입 위협 · 12월 6일 콜롬비아군 · 시에나가 · 사망자 47~2,000명(논란 · 추정) · 가르시아 마르케스『백년의 고독』· 소설 속 3,000명 넘게 · 마콘도(가상) · 'banana republic' = 1904 오 헨리(본명 포터)「제독」· 안추리아 = 가상의 온두라스 · 1897 망명 · 1950 네루다(칠레 · 노벨상)「United Fruit Co.」· 오늘은 옷 브랜드 · 저자: 잘해야 무지, 나쁘면 모욕. **밑줄 의미** So the gig economy wasn't invented in Silicon Valley = 노동자를 하청업자로 돌리는 수법은 오래되었다는 꼬집음 / all too credible = 미국이 실제로 개입해 온 기록 때문에 너무나 믿을 만한 / at best ignorant and at worst offensive = 잘해야 역사를 모르는 것, 나쁘면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 / Satanic Mills · Dark Continent = 어두운 말을 가볍게 상호로 쓰는 일 / 75쪽 첫 줄 its(record) = the US government · it(gunned down) = the Colombian military · 75쪽 ¶1 he(had lived) = O. Henry · its(government) = Anchuria.

> **한 줄 요약** 1928년 콜롬비아의 바나나 학살과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말은 미국 바나나 회사들이 가난한 나라를 거의 절대적으로 지배한 어두운 현실을 보여 준다.

9-6 다국적 기업의 이익은 '잠재적'이다 – 고립 지역의 함정 75쪽 ¶3 ~ 77쪽 ¶1

원문 위치 원서 75쪽 ¶3 ~ 77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75쪽 ¶3	multinational companies (MNCs) or transnational corporations (TNCs) … the 'host economy'	용어 정의
▲	75쪽 ¶4 첫 문장	don't let that make you form a uniformly negative view of MNCs	let · make + O + 동사원형
★	75쪽 ¶5 첫 문장	in 1998, Intel opened a new microchip assembly factory … in Costa Rica, one of the original 'banana republics'	숫자 1998
▲	75쪽 ¶5 첫 문장	an entirely new industry that they could not have dreamed of having on their own	could not have p.p.
★	75쪽 ¶5 둘째 문장(76쪽)	Fairchild and Motorola … in the mid-1960s in South Korea … transistor radios	한국의 과거 – 일치 후보
★	76쪽 ¶1 둘째~셋째 문장	This may happen directly … But it can also happen indirectly, when MNCs buy inputs from local firms	삽입 문항 1순위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76쪽 ¶2 둘째 문장	the World Bank and the WTO, recommend developing countries to welcome MNCs with open arms	통념 — 문 활짝 열기
★	76쪽 ¶2 셋째 문장	Ireland and Singapore are often cited …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용어 FDI · 78쪽 ¶1과 연결
◆	76쪽 ¶3 첫 문장	these potential benefits from MNC presence are just that – 'potential' benefits	밑줄 의미 1순위
★	76쪽 ¶3 둘째 문장	Their realization requires government policies that make MNCs behave in the right ways.	주장 — 정책의 필요
▲	76쪽 ¶4 첫 문장	Given the relatively low level of skills …, MNCs draw from the international labour pool	given = ~을 고려하면
◆	76쪽 ¶4 넷째 문장	rather than trying the 'unknown quantities' of local firms	밑줄 의미: 검증 안 된 현지 기업
◆	76쪽 ¶5 첫 문장	'enclaves', isolated from the rest of the economy, … 'screwdriver operations'	요지 문항 · 핵심 용어
▲	76쪽 ¶5 둘째 문장(77쪽)	most of the real benefits … do not materialize	most of + 복수 명사 → 복수 동사
★	77쪽 ¶1 첫~둘째 문장	by some accounts, … at 60% (… the US at around 20% or even Korea at 35%) … only around $3,500	빈칸 문항 · 숫자 1순위
★	77쪽 ¶1 셋째 문장	all produced by MNC subsidiaries running screwdriver operations in economic enclaves	까닭 — 빈칸의 근거

내용

바나나 공화국 현상은 여러 나라에서 사업하는 부자 나라의 힘센 기업, 곧 다국적 기업(MNC) 또는 초국적 기업(TNC)이 그 투자를 받는 나라('host economy')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보여 준다. 그러나 저자는 그렇다고 다국적 기업을 한결같이 나쁘게 보지는 말라고 말한다. 다국적 기업이 들어오면 받아들인 나라에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다. 다국적 기업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뒤처진 나라가 혼자서는 꿈도 꾸지 못했을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시작할 수 있다. 1998년 인텔이 원조 '바나나 공화국' 가운데 하나인 코스타리카에 새 마이크로칩 조립 공장을 열어 그 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일으킨 것이 그런 예다. 페어차일드 · 모토롤라 같은 세계 최초의 반도체 회사들이 1960년대 중반 한국에 조립 공장을 세운 것도 그렇다. 한국은 지금 반도체 산업의 초강대국 가운데 하나지만, 그때는 주로 수입 부품으로 트랜지스터라디오를 조립하는 일이 가장 앞선 산업에 꼽히던 가난한 나라였다. 받아들인 나라에 이미 있는 산업에서도 다국적 기업은 더 뛰어난 기술과 새 경영 기법을 가르칠 수 있다. 이는 직접 일어날 수 있다. 투자 유치국 시민이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에서 관리자 · 기술자 · 노동자로 일하다가 새 지식을 가지고 현지 기업으로 옮기거나 아예 자기 사업을 차리는 경우다. 간접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 다국적 기업이 현지 기업에서 투입물을 사면, 현지 기업은 때로 다국적 기업의 기술 지원을

받아 가며 더 높은 기술 · 품질 기준을 맞추는 법을 익히게 된다. 그러니 다국적 기업이 내 나라에서 사업하면 잠재적 이익이 클 수 있다. 이런 이익을 들어 많은 기업인 · 경제학자와 세계은행 · WTO 같은 국제기구는 개발도상국에 다국적 기업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낮은 세금이나 아예 면세를 제공하며, 가볍게 규제하거나 특히 노동 · 환경에 관한 일부 현지 규제에서 아예 빼 주라고 권한다. 아일랜드와 싱가포르는 이런 정책으로 해외 직접 투자(FDI)라는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적극 받아들여 번영을 이룬 나라의 예로 자주 꼽힌다. 그러나 문제는 다국적 기업이 주는 이 잠재적 이익이 말 그대로 '잠재적' 이익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익을 실현하려면 다국적 기업이 올바르게 행동하게 만드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의 기술 수준이 비교적 낮으므로 다국적 기업은 높은 관리직 · 기술직을 뽑을 때 국제 인력 풀에서 데려온다. 그 결과 투자 유치국 현지인에게는 높은 지식을 흡수할 여지가 거의 없는 낮은 일자리만 남는다. 어떤 경우에는 정치적 이유로 낮은 일자리에까지 자기 나라 사람을 데려오기도 하는데, 일부 중국 건설 회사가 그렇다. 현지 기업의 생산 능력이 낮으므로 다국적 기업은 새로 가르쳐야 할 가능성이 매우 큰 현지 기업이라는 '미지수'를 시험하기보다 본국이나 이미 공급망을 갖춘 나라의 늘 거래하던 공급업체에서 투입물을 수입하기를 좋아한다. 그 결과 투자 유치국에는 나머지 경제와 동떨어진 '고립 지역(enclave)'이 생기고, 그 안에서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는 주로 수입한 투입물을 싼 현지 노동자가 최종 조립만 하고 현지 기업에서는 거의 사지 않는 '스크루드라이버 작업'을 한다. 이 경우 단기적인 이익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노동자의 임금, 현지 기업에서 산 일부 저기술 투입물 등), 다국적 기업이 주는 진짜 이익 대부분(더 나은 기술의 이전, 더 나은 경영 관행을 접할 기회, 노동자 · 기술자의 고급 기술 훈련)은 실현되지 않는다. '고립 경제'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예는 필리핀이다. 어떤 이들에 따르면 필리핀은 말 그대로 세계에서 가장 첨단인 경제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 수출품 가운데 첨단 기술 제품(주로 전자 제품)의 비율이 60%로 가장 높다(미국 약 20%, 한국 35%보다 훨씬 높다). 그렇게 '첨단'인데도 필리핀의 1인당 소득은 약 3,500달러로, 한국의 3만 달러 이상, 미국의 약 6만 달러와 견주면 한참 낮다. 필리핀이 수출하는 전자 제품은 모두 경제적 고립 지역에서 스크루드라이버 작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 자회사가 만들기 때문이다. 필리핀은 가장 극단적인 예 가운데 하나일지 모르지만, 개발도상국의 다국적 기업 자회사는 대개 고립 지역의 스크루드라이버 작업으로 끝난다.

어법

- **The phenomenon of the banana republic shows how powerful corporations from rich countries … can negatively affect the 'host economy' that receives their investments.** : how = 간접의문문을 이끄는 의문부사(얼마나 · 어떻게), 주어 powerful corporations … + 동사 can affect → shows의 목적어 명사절. how powerful(얼마나 힘센)로 묶어 읽지 않도록. that = 주격 관계대명사.
- **However, don't let that make you form a uniformly negative view of MNCs.** : let + O + 동사원형(make), make + O + 동사원형(form) — 사역동사가 겹친 구조. that = 앞 단락의 내용.
- **Having MNCs around can enable economically backward economies to start an entirely new industry that they could not have dreamed of having on their own** : 동명사 주어 → can enable. enable + O + to V. could not have p.p. = ~할 수 없었을 것이다(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추측). dream of + 동명사.
- **But it can also happen indirectly, when MNCs buy inputs from local firms, which then get to learn to meet higher technological and quality standards** : which = 계속적 용법(선행사 local firms). get to V = ~하게 되다(기회를 얻다).
- **recommend developing countries to welcome MNCs with open arms, offer them low taxes …, regulate them lightly or even exempt them from some local regulations** : 원서는 recommend + O + to V를 쓴다(흔히 recommend that S (should) V로도 씀). to 뒤 welcome · offer · regulate · exempt가 병렬. exempt A from B = A를 B에서 면제하다.
- **The problem, however, is that these potential benefits from MNC presence are just that – 'potential' benefits.** : is that ~ = 보어 명사절. just that = 바로 그것일 뿐(대시 뒤에서 풀어 줌).

- **As a result, the locals in the host countries are left with low-level jobs, with little scope for absorbing higher-level knowledge.** : be left with = ~만 남다(수동). with little scope for + 동명사 = ~할 여지가 거의 없는(little = 부정).
- **The result is that the host country ends up with 'enclaves', isolated from the rest of the economy, in which MNC subsidiaries engage in 'screwdriver operations'** : end up with = 결국 ~을 갖게 되다. isolated = 과거분사(enclaves를 설명). in which = 전치사 + 관계대명사. engage in = ~에 종사하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host (a.)	(투자를) 받아들이는	receiving	home
uniformly	한결같이	consistently	—
backward	뒤처진	underdeveloped	advanced
subsidiary	자회사	affiliate	parent company
superior	더 뛰어난	better	inferior
exempt (v.)	면제하다	excuse	—
realization	실현	fulfilment	—
pool (n.)	인력 풀	reserve	—
scope	여지	room	—
absorb	흡수하다	take in	—
enclave	고립 지역	isolated pocket	—
isolated	고립된	cut off	integrated
materialize	실현되다	come about	—
telling	잘 보여 주는	revealing	—

내용 일치 다국적 기업(MNC) = 초국적 기업(TNC) · 받아들인 나라에 나쁜 영향 가능 · 그러나 한결같이 나쁘게 보지 말 것 · 1998 인텔 코스타리카(원조 바나나 공화국) · 1960년대 중반 페어차일드 · 모토롤라 한국(당시 트랜지스터라디오 조립이 최첨단) · 기술 · 경영 전수(직접: 현지인이 옮김 / 간접: 현지 기업에서 투입물 구매) · 세계은행 · WTO 등 = 환영 · 낮은 세금 · 가벼운 규제 권고 · 아일랜드 · 싱가포르(FDI) · 이익은 '잠재적' · 고위직은 국제 인력 · 일부 중국 건설 회사 · 투입물 수입 · 고립 지역 · 스크루드라이버 작업 · 필리핀 첨단 60%(미국 약 20% · 한국 35%) · 1인당 약 3,500달러(한국 3만 달러 넘게 · 미국 약 6만 달러). **밑줄 의미** just that – 'potential' benefits = 저절로 오지 않는, 가능성일 뿐인 이익 / with open arms = 두 팔 벌려(조건 없이) / 'unknown quantities' = 능력을 알 수 없는 현지 기업 / screwdriver operations = 수입 부품을 싼 노동으로 최종 조립만 하는 일 / literally the most hi-tech economy = 숫자로는 가장 첨단이지만 실속은 없음(by some accounts) / 75쪽 ¶4 that(don't let that) = 바나나 공화국 현상 · 75쪽 ¶5 they(could not have dreamed) = economically backward economies · 76쪽 ¶3 Their(realization) = 잠재적 이익 · 76쪽 ¶4 they(hire) = MNCs.

> **한 줄 요약** 다국적 기업은 새 산업과 기술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 이익은 '잠재적'일 뿐이라, 정책이 없으면 투자 유치국에는 스크루드라이버 작업을 하는 고립 지역만 남는다.

9-7 규제로 이익을 끌어내다 — 한국 · 타이완과 결론 77쪽 ¶2 ~ 78쪽 ¶3

원문 위치 원서 77쪽 ¶2 ~ 78쪽 ¶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77쪽 ¶2 첫 문장	many governments have regulated MNCs in order to maximize the benefits from them	요약문 문항의 바탕
★	77쪽 ¶2 둘째 문장	restricted the ownership share of MNCs, so that the MNCs have to go into a joint venture with a local partner	첫째 수단 — 지분 제한
★	77쪽 ¶2 셋째 문장	In key sectors, the share was usually put under 50%	숫자 50%
★	77쪽 ¶2 넷째~다섯째 문장	transfer technology … ceilings on the royalty … hire more than a certain proportion of the locals	둘째 · 셋째 수단
★	77쪽 ¶2 여섯째 문장	this is known as the 'local contents requirement'	용어 — 6장 · 8장 연결
★	77쪽 ¶2 일곱째 문장	used extensively – and successfully – by … Japan, South Korea, Taiwan and Finland between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and the 1980s	나라 · 시기 — 일치 후보
▲	77쪽 ¶3 둘째 문장	In attracting MNCs, they initially offered tax breaks and even partial suspension of already weak national labour laws	in + 동명사 · 지칭 they
★	77쪽 ¶3 셋째 문장	contrary to prevailing opinion today, they imposed all sorts of regulations	통합 사고 빈칸 · 통념 반박
★	77쪽 ¶3 넷째 문장	Samsung (Korea) and TSMC (Taiwan) … LG … Hyundai-Kia … (see 'Noodle')	6장과 연결
★	78쪽 ¶1 첫 문장	which most people assume have succeeded … actually have done so because of public policy intervention	통념 ↔ 실제 · 삽입절
★	78쪽 ¶1 셋째 문장	the country's supreme landlord (owning almost 90% of the land)	숫자 90%
★	78쪽 ¶2 첫~둘째 문장	The banana is the most productive fruit … used in the wrong way, has led to highly negative outcomes	주장 문항 1순위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78쪽 ¶3 셋째 문장	the host country will end up as an 'enclave economy', if not a 'banana republic'	밑줄 의미: if not
▲	78쪽 ¶3 넷째 문장	Only when there are public policies ..., will host economies truly benefit	Only when 도치

내용

그러니 많은 정부가 다국적 기업에서 얻는 이익을 최대로 하려고 다국적 기업을 규제해 온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정부들은 다국적 기업의 지분을 제한해 다국적 기업이 현지 파트너와 합작 투자를 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현지 파트너는 그러지 않을 때보다 더 나은 회사에게서 배울 기회가 훨씬 커진다. 핵심 부문에서는 보통 지분을 50% 미만으로 두어 현지 쪽이 더 유리한 협상 위치에 서게 했다. 다국적 기업에 자회사로 기술을 이전하라고 요구하거나, 자회사에 기술 사용을 허락하고 받는 로열티에 상한을 두기도 했다. 때로는 일정 비율 이상의 현지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한 노동자를 훈련하라고 의무화했다. 다국적 기업 투자의 간접 이익을 최대로 하려고 자회사에 투입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현지 공급업체에서 사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 이것을 '현지 조달 요건(local contents requirement)'이라고 한다. 이런 정책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부터 1980년대까지 일본 · 한국 · 타이완 · 핀란드 같은 나라가 널리, 그리고 성공적으로 썼다. 특히 한국과 타이완의 사례가 흥미롭다. 두 나라는 다국적 기업을 끌어들이면서 처음에는 첨단 기술과 관계없는 부문(의류 · 봉제 인형 · 운동화 등)에서 세금을 깎아 주고, 안 그래도 약한 국내 노동법의 일부 적용까지 멈추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배적인 견해와 달리 두 나라는 온갖 규제를 두어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전자 · 자동차 같은 첨단 산업으로 이끌고, 다국적 기업에서 기술과 숙련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끌어냈다. 이런 정책 덕분에 한국과 타이완은 이제 반도체의 삼성(한국) · TSMC(타이완), 디스플레이의 LG(한국), 자동차의 현대-기아(한국) 같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을 스스로 갖게 되었다(6장 참조). 중국도 지난 수십 년 동안 비슷한 일을 해 왔다. 다만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이 몹시 들어가고 싶어 한 큰 국내 시장 덕에 중국은 협상력이 아주 커서, 지식 이전의 많은 부분을 한국 · 타이완처럼 공식 법률로 하지 않고 개별 다국적 기업과의 비공식 협상으로 정했다. 대부분의 사람이 다국적 기업에 너그러웠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성공했다고 여기는 아일랜드와 싱가포르조차 실제로는 공공 정책의 개입 덕에 성공했다(전략적 입지, 곧 아일랜드의 EU 회원국 지위와 국제 무역의 핵심 요충지라는 싱가포르의 위치도 도움이 되었다). 두 나라 정부는 아무 다국적 기업이나 와서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그저 기다리지 않고, 전자 · 제약 같은 첨단 산업에 투자하려는 다국적 기업에 일부러 맞춤형 지원을 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또 땅의 거의 90%를 가진 나라 최대의 지주라는 위치를 한껏 살려, 생산성이 높은 산업의 다국적 기업에 좋은 입지를 적정한 임대료로 내주며 끌어들였다. 저자는 결론에서 바나나로 돌아간다. 바나나는 세계에서 가장 생산적인 과일이다. 그러나 그 생산성이 잘못 쓰이자 몹시 나쁜 결과를 낳았다. 처음에는 플랜테이션 주인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아메리카의 노예를 살려 두는 데 쓰였고, 나중에는 카리브해 안팎의 많은 나라에서 노동 착취 · 정치 부패 · 국제적 군사 침공의 원인이 되었다. 다국적 기업도 그렇다. 바나나처럼 많은 다국적 기업은 생산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잘못 쓰이면 투자 유치국은 '바나나 공화국'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립 경제'가 되고 만다. 기술 · 노동자 숙련 · 경영 관행의 이전을 최대로 보장하는 공공 정책이 있을 때에야 투자 유치국은 다국적 기업이 있어 정말로 이익을 얻을 것이다.

어법

- **Given this, it is not a big surprise that many governments have regulated MNCs in order to maximize the benefits from them.** : Given this = 이를 고려하면. 가주어 it + 진주어 that절. in order to V = 목적.
- **They have restricted the ownership share of MNCs, so that the MNCs have to go into a joint venture with a local partner, which will then have a much greater chance to learn** : so that = 결과 · 목적. which = 계속적 용법(선행사 a local partner). much + 비교급.

- **Countries have required MNCs to transfer technology to their subsidiaries or put ceilings on the royalty they can charge** : require + O + to V. have required와 (have) put이 병렬. the royalty (that) they can charge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 **In attracting MNCs, they initially offered tax breaks and even partial suspension of already weak national labour laws** : in + 동명사 = ~하면서, ~할 때. they = Korea and Taiwan.
- **they imposed all sorts of regulations to direct MNC investments … and to extract the largest possible amounts of technologies** : to direct와 to extract = 목적의 to부정사 병렬. the + 최상급 + possible = 될 수 있는 한 가장 ~한.
- **Even Ireland and Singapore, which most people assume have succeeded economically because they had been liberal with MNCs, actually have done so because of public policy intervention** : which 뒤 most people assume는 삽입절 → which가 have succeeded의 주어(주격). had been = 과거완료. have done so = have succeeded(대동사).
- **But that productivity, used in the wrong way, has led to highly negative outcomes.** : used in the wrong way = 과거분사구(잘못 쓰여). has led to = 현재완료. lead to = ~을 낳다.
- **Only when there are public policies to ensure maximum transfer of technologies, worker skills and management practices, will host economies truly benefit from the presence of MNCs.** : Only + 부사절이 앞에 오면 주절이 도치된다(will host economies benefit). to ensure = policies를 꾸미는 형용사적 to부정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regulate	규제하다	control	deregulate
joint venture	합작 투자	partnership	—
ceiling	상한	cap	floor
mandate (v.)	의무화하다	require	—
extensively	널리	widely	sparingly
suspension	(적용) 중지	postponement	enforcement
prevailing	지배적인	dominant	marginal
leverage	영향력, 지렛대	clout	—
liberal	너그러운, 규제가 적은	permissive	strict
custom-made	맞춤형의	tailor-made	off-the-shelf

내용 일치 지분 제한(핵심 부문 50% 미만) · 기술 이전 · 로열티 상한 · 현지 고용 · 훈련 · 현지 조달 요건 · 일본 · 한국 · 타이완 · 핀란드(2차 대전 뒤~1980년대) · 한국 · 타이완: 처음엔 저기술 부문 세금 감면 → 온갖 규제로 첨단 산업 유도 · 삼성 · TSMC · LG · 현대-기아 · 중국 = 비공식 협상 · 아일랜드 · 싱가포르 = 공공 정책 개입 · 싱가포르 정부 땅 거의 90% · 가장 생산적인 과일. **밑줄 의미** contrary to prevailing opinion today = 문을 활짝 열어 성공했다는 통념과 달리 / if not a 'banana republic' = 바나나 공화국까지는 아니더라도 / 77쪽 ¶2 which(will then have) = a local partner · 77쪽 ¶3 they(initially offered) = Korea and Taiwan · it(gave it) = China · 78쪽 ¶2 It(was initially used) = that productivity(바나나의 생산성).

> **한 줄 요약** 다국적 기업도 바나나처럼, 정책으로 올바르게 쓸 때에만 이롭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Edible Economics [Chapter 9 BANANA]

범위	Banana (원서 PDF 72~79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No fruit in the world is as productive as the banana. Yet that very productivity, put to the wrong use, has produced terrible results. In the Americas it first kept slaves alive cheaply for plantation owners; later it fuelled labour exploitation, corrupt politics and foreign military invasions around the Caribbean. MNCs are much the same: many, like bananas, are highly productive, but if they are handled badly, a host nation may become an 'enclave economy', or even a 'banana republic'. Host economies will truly gain from MNCs only when public policies ensure that technologies, skills and management know-how are passed on as fully as possible.

① Developing countries should reject MNCs.
② Hosts need policies to benefit from MNCs.
③ Bananas should be grown on a smaller scale.
④ MNCs are more productive than local firms.
⑤ Banana firms must pay higher taxes.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Where bananas are not grown, people think of them simply as fruit. But some 85% of the world's bananas are estimated to be eaten where they are grown, across Africa, the Caribbean, South America and South and South-east Asia. There, bananas are more often cooked than eaten raw: they are boiled, fried or baked as a source of carbohydrate, or used as a vegetable in savoury cooking, above all in southern India. Even the sweeter 'dessert banana', which makes up 95% of the bananas traded across borders, gets cooked, partly because local people rarely tell it apart from the 'cooking banana', or plantain. Across much of Africa, people even brew bananas into beer.

① Where Bananas Grow, They Are More Than Fruit
② Why Dessert Bananas Dominate World Trade
③ Bananas: The Healthiest Fruit for Breakfast
④ How the Banana Spread from Asia to Africa
⑤ The Decline of Cooking Bananas in Africa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Since skill levels in developing countries are relatively low, MNCs usually fill their senior management and technical posts from the international labour market, leaving local people with low-level jobs that teach them little. Some, for political reasons, even bring in their own nationals for the lower jobs, as certain Chinese construction firms do. MNCs also tend to import their inputs from trusted suppliers abroad instead of risking untested local firms that would need training. The result is an 'enclave' cut off from the wider economy, where subsidiaries merely assemble imported parts with cheap local labour. Workers may earn wages, but the deeper benefits, such as the transfer of technology and skills, never arrive.

① MNCs often bring host economies few real gains.
② Developing countries should train more managers.
③ Chinese firms hire the most local workers.
④ Imported inputs are better than local ones.
⑤ MNC wages are too low in developing countries.

4. 밑줄 친 <u>at best ignorant and at worst offensive</u>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Today many Americans, and many others in wealthy countries, know 'banana republic' only as the name of a clothing company. The phrase, however, was first created to describe a grim reality: poor developing nations almost totally controlled by big corporations from rich countries, a reality that included coups backed by the companies and the shooting of striking workers. Using such a phrase to sell fashionable clothes is, in the author's view, <u>at best ignorant and at worst offensive</u>. He compares it to calling a trendy coffee shop Satanic Mills or a luxury sunglasses shop Dark Continent.

① The brand ignores or insults a painful history.
② The brand sells clothes of poor quality.
③ The brand was created in a banana republic.
④ The brand helps people learn about history.
⑤ The brand should move its shops to Honduras.

5. 밑줄 친 just that – 'potential' benefit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Pointing to the advantages MNCs can bring, many business leaders, economists and bodies such as the WTO and the World Bank urge developing countries to welcome foreign firms warmly: tax them lightly or not at all, and loosen the rules on them, especially those on the environment and labour. Singapore and Ireland are frequently held up as nations that grew rich by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is way. The trouble is that the gains MNCs promise are just that – 'potential' benefits. They will become real only if governments adopt policies that lead MNCs to behave in the right ways.

① They come only when policies guide MNCs.
② They are larger than most experts expect.
③ They are enjoyed only by rich countries.
④ They appear as soon as MNCs arrive.
⑤ They depend on low taxes for MNCs.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The Portuguese fed bananas to the enslaved Africans whom ① they forced to grow sugar on Madeira and in the Canary Islands, which Portugal partly owned until 1479. Later, when ② they began carrying Africans across the Atlantic as slaves, ③ they made bananas, plantains in particular, a basic food on ④ their slave ships, together with rice. On the plantations, the slaves were urged to plant bananas on the little plots handed to ⑤ them for growing extra food. The banana was ideal for such plots: in the right climate it grows all year round and yields 200,000 pounds an acre, which is ten times as much as yams, with very little labour. Owners wanted the plots to take up as little of the slaves' time as possible.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The US banana companies became even more notorious after an event now known as the Banana Massacre. In autumn 1928, workers on UFC's Colombian plantations went on strike. Most of their demands, such as toilets, medical care, wages paid in cash rather than in coupons for overpriced company stores, and being treated as employees instead of subcontractors, would be seen as basic today. The US government threatened to send in troops unless the strike ended quickly, and the Colombian army chose to crush it by force on 6 December. Soldiers shot a large number of strikers in the town of Ciénaga; estimates of the dead vary from 47 to 2,000. Gabriel García Márquez later fictionalized the event in One Hundred Years of Solitude, where more than 3,000 strikers are killed.

① 파업은 1928년 봄에 UFC 플랜테이션에서 시작되었다.
② 노동자들은 회사 상점에서 쓰는 쿠폰으로 임금을 받기를 요구했다.
③ 콜롬비아군은 12월 6일 무력으로 파업을 진압하기로 했다.
④ 시에나가에서 죽은 노동자는 3,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⑤ 미국 정부는 파업을 끝내려고 직접 군대를 보냈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Between the late nineteenth and mid-twentieth centuries, US banana companies dominated northern South America and Central America so completely that the countries there came to be known as 'banana republics'. The phrase was invented by O. Henry, an American writer of short stories whose real name was William Sydney Porter. It appeared in 'The Admiral', a story he published in 1904. The story takes place in Anchuria, a fictional version of Honduras, where O. Henry had spent time in exile in 1897, and it portrays a government that is pitiful both financially and organizationally. About fifty years later, in 1950, the Chilean poet and Nobel Prize winner Pablo Neruda helped spread the phrase with a poem titled 'United Fruit Co.'

①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말은 미국 바나나 회사들의 지배에서 나왔다.
② 오 헨리의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다.
③ 「제독」의 배경 안추리아는 온두라스를 바탕으로 한 가상의 나라다.
④ 오 헨리는 「제독」을 발표한 뒤인 1897년에 온두라스로 망명했다.
⑤ 파블로 네루다는 시를 써서 이 말을 더 널리 퍼뜨렸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The banana originally comes from South-east Asia and is believed ① to have been domesticated thousands of years ago. During domestication, people chose seedless mutants because they had more parts ② that could be eaten, and as a result the banana lost its natural ability to reproduce on its own. Domesticated bananas cannot spread without people ③ removing shoots, or suckers, from the underground stem of a mature plant and planting them again. Bananas ④ multiplied in this way ⑤ is all genetically identical, which, the author notes in a footnote, makes their diseases hard to control.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Plenty of dishes carry the name of the person who supposedly invented them, and others are named after the person they were supposedly made for. But one dish (A) [named / is named] after a person who just adored it: the Elvis sandwich, a sandwich of banana and peanut butter loved by Elvis Presley, known to many as 'the King'. Presley reportedly ate it constantly, so much so (B) [that / what] the sandwich ended up carrying his name. The author sides with the King on this. This peanut butter–banana sandwich with a little honey (C) [is / are] among his wife's favourite breakfasts, and he often joins her.

	(A)	(B)	(C)
①	named	that	is
②	is named	what	are
③	is named	that	is
④	named	what	is
⑤	is named	that	are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This almost complete economic control meant that the banana companies also had an extremely ① strong grip on politics in the countries that grew bananas. With their own customs officers and police, the companies carried out much of their business ② beyond the reach of national law. Politicians were bribed to ③ guarantee policies friendly to business. When governments tried to act against the companies' interests, even by raising extremely low taxes only to very low levels or by strengthening workers' rights a ④ great deal, the companies backed coups against them, sometimes with the help of American mercenaries known as filibusters. And during the first fifty years of the twentieth century, US Marines ⑤ regularly invaded some of these countries to protect American business interests.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The clearest case of an 'enclave economy' is the Philippines. By some accounts it is literally the world's most high-tech economy: according to World Bank figures, high-technology goods, mostly electronics, make up 60% of its manufactured exports, far above the US (about 20%) and even Korea (35%). Yet its income per head is only about $3,500, compared with over $30,000 in Korea and roughly $60,000 in the US. The reason is that its electronics exports are all made by MNC subsidiaries that simply assemble imported parts in isolated enclaves. The Philippine case shows that _____.

① a high-tech export basket does not guarantee a rich economy
② electronics exports always raise national income
③ the World Bank overstates the incomes of poor countries
④ Korea should export more high-tech goods
⑤ screwdriver operations transfer advanced technologies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But knowledge can also spread indirectly, when MNCs purchase inputs from local companies, which then learn to meet higher technical and quality standards.

MNCs can help economically backward countries launch whole new industries they could never have built alone. (①) In 1998, for example, Intel opened a microchip assembly plant in Costa Rica, itself one of the first 'banana republics', and started its semi-conductor industry. (②) Similarly, in the mid-1960s pioneering chip firms such as Fairchild and Motorola set up assembly lines in South Korea, then a poor country where assembling transistor radios from mostly imported parts was among the most advanced work. (③) Even in existing industries, MNCs can pass on better technologies and management methods. (④) This can happen directly, when local people who work for MNC subsidiaries later move to local firms or start their own, taking what they learned with them. (⑤) So the potential gains from hosting MNCs can be huge.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To draw in MNCs, Korea and Taiwan first offered tax breaks and even partly suspended labour laws in low-tech sectors such as garments and toys. ① Yet, contrary to what is widely believed today, they also placed all kinds of rules on MNCs to steer their investment into high-tech industries such as electronics and cars. ② They also made sure that as much technology and skill as possible was drawn out of the MNCs. ③ The Cavendish, which accounts for 95% of the bananas traded internationally, was developed in the mid-1830s. ④ As a result, the two now have world-class MNCs of their own, such as Samsung, TSMC, LG and Hyundai-Kia. ⑤ China has done something similar, though its huge market let it secure much of its technology through informal deals rather than laws.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Bananas may have first come to the Americas as a vital part of the slave plantation system, but centuries later they powered the export economies of many countries in the region.

(A) These companies soon controlled the economies of the producing countries. In Honduras, UFC and SFC ran the railways and electric lights as well as the mail, telegraph and telephone, and many people in these countries called the firms El Pulpo, 'the octopus'.

(B) This shift was driven by new technology.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railways, steamships and refrigeration began to allow perishable farm goods to be exported in bulk over long distances. Before then, bananas had been a luxury sold in small amounts even in the US.

(C) Once large-scale imports became possible, US firms such as the United Fruit Company and the Standard Fruit Company set up huge plantations across the Caribbean, northern South America and Central America.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t is hardly surprising, then, that many governments have placed rules on MNCs to get the most out of them. They have limited how much of a local business an MNC may own, often to under 50% in key sectors, so that MNCs must form joint ventures with local partners, who can then learn from them and bargain from a stronger position. They have also required MNCs to pass on technology, capped the royalties MNCs charge their subsidiaries, and obliged them to hire and train local workers or buy a set share of their inputs locally. Japan, Korea, Taiwan and Finland used such policies widely and successfully from the end of World War II to the 1980s.

→ Many governments have attached (A) _____ to MNC investment, such as ownership limits and local hiring, so that local firms and workers could (B) _____ technologies and skills from MNCs.

① conditions ..... acquire
② conditions ..... reject
③ subsidies ..... acquire
④ subsidies ..... export
⑤ freedoms ..... hide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An estimated 85% of bananas are eaten where they are grown. Europeans first saw bananas in their South-east Asian homeland only in 1521, during Magellan's voyage.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US firms such as the United Fruit Company, today's Chiquita, and the Standard Fruit Company, today's Dole, built huge plantations in the Americas. In 1928, Colombian troops shot striking UFC workers in what became known as the Banana Massacre. O. Henry coined the term 'banana republic' in 1904, and Pablo Neruda spread it in 1950. High-tech goods make up 60% of the Philippines' manufactured exports, yet it remains poor. Korea and Taiwan, by contrast, imposed many rules on MNCs.

<QUIZ>

(1) What share of bananas is estimated to be eaten where they are grown?

Answer for (1): _____

(2) In what year did Europeans first see bananas in South-east Asia?

Answer for (2): _____

(3) Which company is known today as Chiquita?

Answer for (3): _____

(4) In what year did the Banana Massacre take place?

Answer for (4): _____

(5) Who coined the term 'banana republic'?

Answer for (5): _____

(6) What share of the Philippines' manufactured exports is high-tech?

Answer for (6): _____

(7) Is it true or false that Korea and Taiwan let MNCs invest without any rules?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1521	N. O. Henry
B. 95%	O. True
C. 25%	P. 35%
D. 1479	Q. 1470s
E. 60%	R. United Fruit Company
F. Standard Fruit Company	S. False
G. 1904	T. 1897
H. Pablo Neruda	U. Dole
I. 1928	V. 1998
J. 20%	W. $3,500
K. García Márquez	X. Magellan
L. 1950	Y. Joseph Paxton
M. 85%	Z. 1930s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프레슬리는 그것을 늘 먹었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대단해서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따서 부르게 되었다. (be supposed to have p.p. / so much so that)

02 바나나를 샌드위치 속으로 먹는 것은 꽤 드문 방식이다. (동명사 주어 + 단수 동사)

03 바나나의 85%는 생산되는 곳에서 소비된다고 추정된다. (It is estimated that ~)

04 바나나는 수천 년 전에 작물화되었다고 추정된다. (be estimated to have been p.p.)

05 작물화된 바나나는 사람의 개입 없이는 번식시킬 수 없다. (cannot ~ without)

06 첫 유럽인이 도착했을 무렵, 바나나는 이미 수백 년 동안 그 대륙에 토착화되어 있었다. (by the time + 과거 → 과거완료)

07 노예 주인들은 노예들이 그 땅에 되도록 적은 시간을 쓰기를 바랐다. (want + O + to V / as little ~ as possible)

08 바나나 회사들의 지배가 어찌나 대단했던지 이 나라들은 '바나나 공화국'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be such that)

09 다국적 기업은 뒤처진 경제가 혼자서는 꿈도 꾸지 못했을 새 산업을 시작하게 해 줄 수 있다. (could not have p.p.)

10 그 결과 투자 유치국 현지인에게는 낮은 일자리만 남는다. (be left with)

11 대부분의 사람이 성공했다고 여기는 아일랜드와 싱가포르는 실제로는 공공 정책 덕에 그렇게 되었다. (관계대명사 + 삽입절(most people assume))

12 공공 정책이 있을 때에야 투자 유치국은 다국적 기업 덕에 정말로 이익을 얻을 것이다. (Only when + 절 → 주절 도치)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생산지에서 소비되는 바나나(추정)	
디저트 바나나 · 캐번디시의 국제 거래 몫	
우간다 · 르완다 · 카메룬 농촌의 하루 열량	
바나나 품종 / 캐번디시 개발(각주 iv)	
캐번디시가 그로 미셸을 대체(각주 v)	
포르투갈인의 서아프리카 도착 / 동남아시아에서 처음 봄	
카나리아 제도 일부의 포르투갈 소유	
바나나의 에이커당 수확량	
UFC · SFC의 지금 이름	
요즘 세계 최대 바나나 수출국	
UFC가 과테말라 최대 지주였던 때	
바나나 학살 / 군의 진압 날짜 / 장소	
실제 사망자 추정 / 소설 속 사망자	
'banana republic'을 만든 단편 · 작가 / 망명	
말을 퍼뜨린 시 · 시인	

항목	답
인텔의 코스타리카 공장 / 페어차일드 · 모토롤라의 한국 공장	
필리핀 제조업 수출의 첨단 제품 비율(미국 · 한국)	
1인당 소득: 필리핀 / 한국 / 미국	
핵심 부문의 다국적 기업 지분	
규제를 쓴 나라 · 시기	
싱가포르 정부가 가진 땅	

4-3. 통합 사고 문제 – 6장과 9장을 잇는 자리

문제

6장에서 저자는 현대자동차가 처음에는 포드와의 합작 투자로 세워져 포드 영국이 개발한 코티나를 주로 수입 부품으로 조립했다고 썼고(54쪽 첫 줄), 한국 정부가 자체 모델을 내놓지 않으면 생산 면허를 거두겠다고 위협했으며 국내 부품 산업이 자라도록 현대와 다른 (외국 · 국내) 회사들에 제품의 '현지 부품 비율'을 높이라고 압박했다고 썼다(55쪽 ¶4). 9장에서 저자는 많은 정부가 다국적 기업의 지분을 제한해 현지 파트너와 합작 투자를 하게 하고 '현지 조달 요건'을 두었으며(77쪽 ¶2), 한국과 타이완이 이런 정책 덕에 현대-기아 같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을 갖게 되었다고 썼다(77쪽 ¶3).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타이완이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첨단 산업으로 이끌려고 무엇을 두었다고 저자가 보았는지 아래 77쪽 ¶3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원서 낱말 하나로 쓰고, 그 근거를 6장과 9장에서 하나씩 들어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6장 또는 9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한국 · 타이완의 다국적 기업 정책: However, contrary to prevailing opinion today, they imposed all sorts of _____ to direct MNC investments into hi-tech industries, like electronics and automobiles, and to extract the largest possible amounts of technologies and skills from MNCs.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